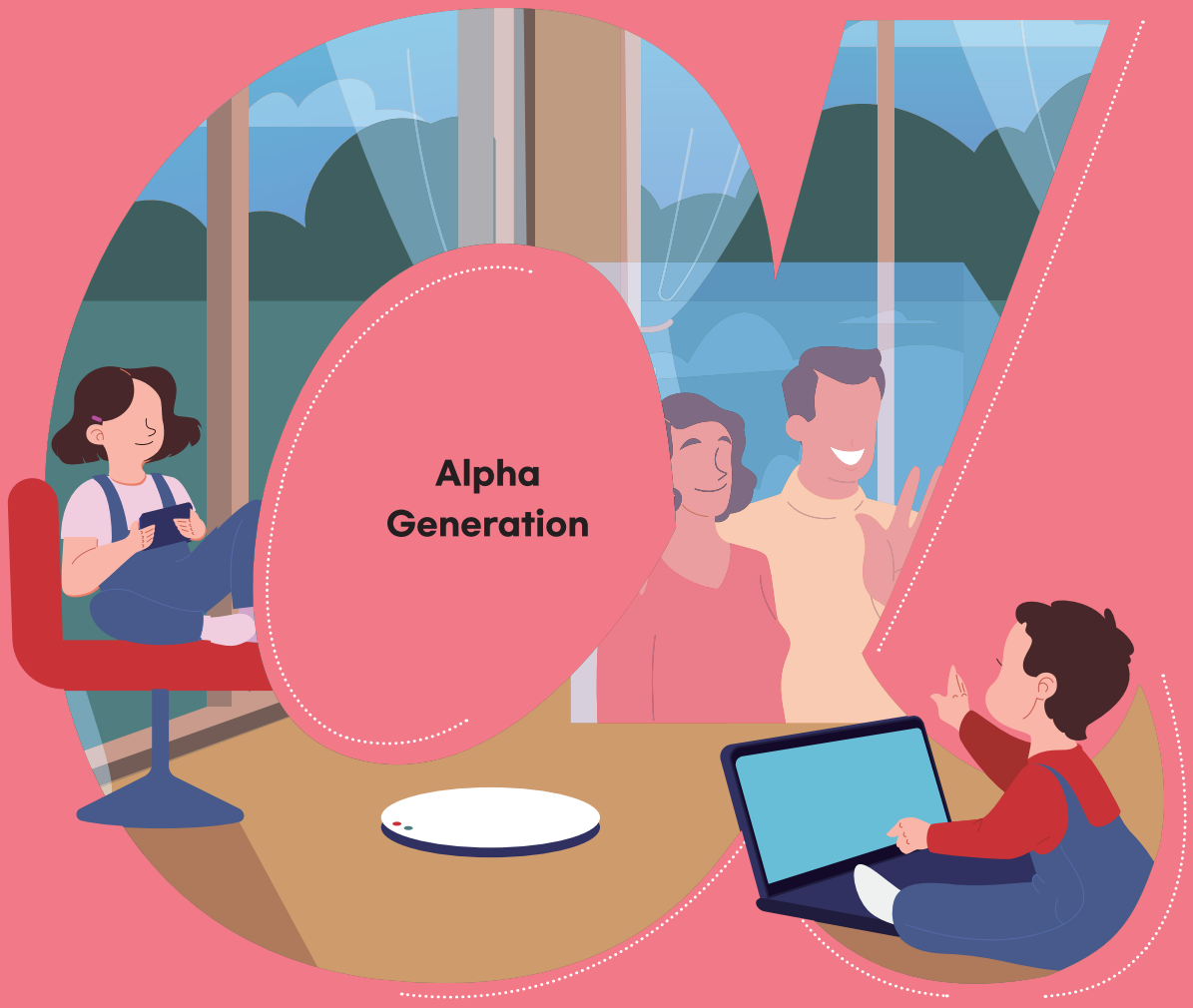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Vol.162
2020 March / April



Special theme

알파세대를 위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다

건강한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에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춥지 않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봄이 오면 설레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황사와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시대, 환절기 질환을 걱정하는 세대를 맞게된 것 같아 유감이 앞섭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한양대학교의료원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묻습니다.

2020년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테마는 '세대'입니다. 다양한 세대론이 트렌드에 맞춰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이에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서는 여섯 호에 걸쳐 유아청소년기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주의해야할 질환의 정보를 심도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3+4월호는 유아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알파세대'의 건강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파세대는 2011년에서 2015년에 태어나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난 유아청소년 세대를 지칭합니다. 스마트 기기만 들여다보는 우리 아이가 시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문제가 있진 않을지, 학습에 집중 못하는 아이가 ADHD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은 분들께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드립니다.

한양토픽에서는 의학연구원 및 산하 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해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쾌거에 이어, 본격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의 박차를 가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이내믹한양에는 저서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잔의 의학〉을 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승 교수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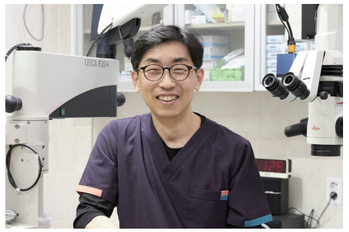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화가 가득 하시길 언제나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 호 순







contents

Vol.162 2020 March / April

02 **즐거운 편지** 건강한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정은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08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

14 **Special theme ❶** 전자기기 자주보는 아이, 눈 건강 괜찮을까?
16 **Special theme ❷** 소아 ADHD 의심되는 우리 아이, 스마트폰이 원인일까?
18 **Special theme ❸** 사춘기 성조숙증 바로 알기
20 **Special theme ❹** 아이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할까?

22 **Dynamic Hanyang**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책 출간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와 중증외상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양평제일안과
28 **Dr. Opera** 쥘 에밀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
30 **Dr. Movie** 되풀이되는 특정 사조의 영화들, 우연인가?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조지 웨슬리 벨로우스와 복막염
34 **주목할 만한 연구** 위장관 천공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내시경적 치료방법
36 **코로나19 오해와 진실** Q&A, OX로 보는 코로나19
38 **언론 속 한양인** 베트남 떠이빈서 해외 의료봉사 외
40 **한양뉴스**
43 **Hihy 건강저장소**
44 **발전기금**
46 **코로나19 뉴스**
47 **외래 진료 시간표**

Life Cycle Guide, 모든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다 ❶

알파세대를 위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다

2011~2015년에 태어나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난 세대. 유아·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련 질환과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0년 3월 9일 통권 162호 **발행인** 최호순 **편집인** 이항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력으로 증명하는 프로 해결사

김정은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회의 실력이라고 했던가.
자신에게 오는 환자의 사소한 고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프로 해결사 김정은 교수의 실력은
오늘도 더 많은 환자에게 밝은 미소를 찾아주고 있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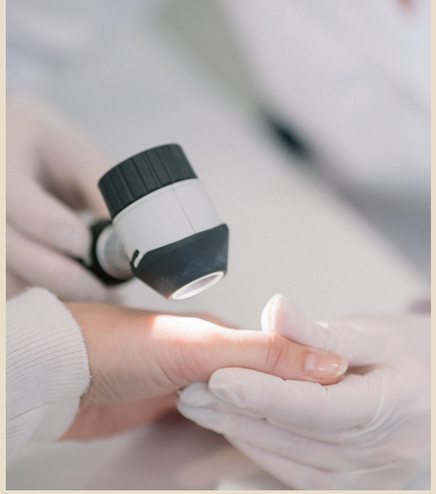
어릴 적 목격한 한 장면을 기억한다. 중학생이었던 김정은 교수가 열린 안방 사이로 보았던 슬픔에 빠진 부모님의 모습.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은 어머니가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은 날이었다.

"한 집안의 장녀이자 여의사로서 살아온 어머니는 제 평생의 롤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녀이자 여의사인 저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죠."

흑색종이란 질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 김 교수는 자신의 롤모델인 어머니의 삶과 가족의 평화를 해치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어머니는 완치되셨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신념은 김정은 교수를 피부과 의사의 길로 이끌었다.

피부과 전문의가 된 후 만난 치과 전공의 흑색종 환자도 있었다. 내원한 환자의 손끝에서 발견한 악성 흑색종은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같았다. 의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은 직업적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나 다른 병원에서는 손가락의 절단을 판명받은 상황이었다. 한 사람의 꿈과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김정은 교수는 여느 때처럼 진지했고, 어느 때보다도 묵직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했다. 절단까지 하지 않고 피부 이식으로 손가락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을 마친 후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하던 환자 아내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흑색종 수술 당시 환자가 전공의 졸업 반이었으니, 지금은 어디선가 전문의로서 누군가의 꿈과 미래를 살리는 일을 든든하게 해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연구상 수상으로 증명하는 실력

한양대학교병원에 2012년부터 피부과 의사로서 근무하는 김정은 교수의 진지함은 대외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2017년 기초실험 연구로 받은 건선 학회의 건선 학술상도 그 증거다. 직접 실험실에서 피부 세포를 키우고, 건선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인자들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염증반응이 많이 일어나는지 파악한 논문이었다.

2015년 수상한 라로슈포제 아시아-태평양 피부 과학 재단상도 빛나는 실적이다. 임상 논문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해당 논문의 주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아연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다. 연구는 아연을 8주 정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경표피증발량, 가려움증 등의 아토피 증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밝히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미네랄 보충이 아토피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토피는 면역 때문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흔히 아동 질환으로만 인식하기 쉬운 아토피는 최근 성인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와 면역력 약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증가 등의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피부를 위협하는 여러 질병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는 세포 사이사이로 유분이나 수분 등이 쌓여 장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바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작년 한 해 다녀온 연수도 김정은 교수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었다. 건선, 색소 침착, 기미 등 다양한 방면의 해외 연구 경험을 쌓으며 시야를 넓힌 김 교수는 대한색소학회 학술 간사를 맡고 있고,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홍보 간사, 코스메틱피부과학회 교육이사,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만큼 앞으로도 진지한 연구가이자 학술가로서 활약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피부 의학 선진국

한국은 피부 의학 측면에서 여느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기미와 색소 침착과 같은 미용 시술은 단연 한국이 독보적이며,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종류의 수술도 앞선다.

"해외에서 피부과 시술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제병원을 통해 내원하는 국내 유학생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국제병원을 통해 내원한 러시아 환자의 피부암 수술을 진행했다는 김정은 교수, 한양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피부암 가족력이 있어 규칙적으로 내원하는 뉴질랜드 출신 환자도 있었다.

"연수 중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인종별, 국가별 피부 반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선을 예로 들면 동양인과 서양인이 각각 기전도 다르고 병의 양상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아토피의 경우도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연구 주제를 이야기하는 김 교수의 눈빛이 빛났다.

실력과 진지함을 겸비한 프로 해결사

진지한 연구가로서의 모습과는 별개로 평소 환자들에게 잔소리가 많다는 김정은 교수. 자신의 잔소리로 안정감과 희망을 느끼는 환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는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를 열망한다.

"보이지 않는 장기에 생긴 질병도 무섭지만, 눈에 드러나는 피부병에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그런 환자분의 그늘을 걷어 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진지함을 겸비한 프로 해결사 김정은 교수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것들을 기대해 본다.

Hanyang Topic

의학 연구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보다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의견을 나누며 협진하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촘촘한 진료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의학 연구진의 긴밀한 협업이 주효했다.
2017년 발족해 심도 깊은 미래 의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을 만났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왼쪽부터) 장기석 센터장, 김이석 센터장, 이상원 임상약리학과장, 최동호 연구원장, 김상헌 센터장

의학 연구의 인프라와 인력에 집중하다

의학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의 의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각종 질환들의 베일을 벗겨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미래 의학의 기반도 연구에서 나온다. 의학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당연히 다학제 연구가 필수다.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머리를 맞대야만 비로소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체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한양대학교병원은 미래 의학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조직을 꾸렸다. 2017년에 발족한 '의학연구원'이 그것이다.

의학연구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나, 의학연구원을 구성하는 내부 조직을 살펴보면 한양대학교병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의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을 구성한 4개의 센터만 봐도 그렇다.

임상시험센터,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인체유래물은행, 의료정보연구센터 등 이들 센터는 의학연구원이 발족되기 이전부터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의학연구원이 발족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협업의 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은 '임상의학 연구'와 '임상시험 활성화'라는 목표를 두고 발족되었습니다. 초대 이광현 의학원장님을 필두로 2대 윤호주 의학원장님을 거쳐 제가 3대 의학원장으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선 분들께서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 의학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한양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이자, 의학연구원장을 맡은 최동호 교수의 말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의학연구원은 2019년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최동호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비와 연구인력인데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대규모 국책과제를 수주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양대학교병원은 서울시내 쟁쟁한 병원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주관기관으로 뽑혔다. 이를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은 신진 연구자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4개 센터의 시너지

의학연구원을 이루는 4개 센터 각각의 활약상에 대한 기대는 가히 높다. 우선 임상시험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을 목표로 신약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센터 다기관 과제를 수행하며 임상 데이터에 근거한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수행 최적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정보연구센터와의 협업은 필수다. 이렇게 두 개 센터의 협업으로 의학연구원은 표준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Common Data Model, CDM)과 의료 정보 데이터 저장소(Clinical Data Warehouse, CDW)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정보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다기관 의료 데이터 표준화 구축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표준화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약물 부작용 분석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최근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료기기 기술 개발이라는 단기 목표 아래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과제와 신개발의료기기 다기관 임상 근거 창출 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및 공학대학도 첨단 의료 기기 개발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한편,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에서 얻은 조직과 체액, 세포, 혈액, 균주 등의 생체자원과 관련한 임상정보를 보관·관리해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의생명연구는 임상의료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임상시험에 직접 접목해 기초연구자, 임상연구자,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통합 연구개발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 Research)가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바이오뱅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질환군에 관해서도 인체유래물 검체를 담당할 인체유래물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모든 활동은 한양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다. 의학연구원은 4개 센터가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양대학교병원이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역할에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Mini interview



김상현

임상시험센터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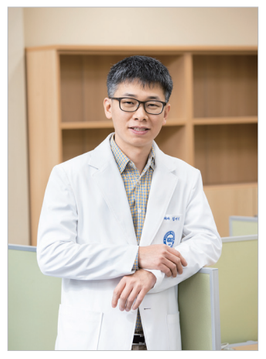
올해 임상시험센터는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와 제약사 임상시험본부,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센터의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젊고 열정 넘치는 연구자들이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교육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강화할 임상시험 검체 처리, 보관, 분석을 지원하는 코어랩 서비스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조정기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장(비뇨의학과 교수)

의료기기 개발 초기부터 전임상, 임상시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대형 과제에 한양대학교병원의 많은 임상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합의료기기센터 심포지엄을 통해 체계적으로 과제 도전과 수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와 협업으로 새로운 결실을 거두겠습니다.



김이석

의료정보연구센터장(정형외과 교수)

의료정보연구센터는 병원에서 생성되는 의료 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전문인력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어 의대-공대의 시너지가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역량까지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기석

인체유래물은행장(병리학교실 교수)

인체유래물은행은 다양한 인체유래물을 수집, 저장, 처리, 분양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 첫 발걸음이 여러 사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관리하는 임상검체와 정보들을 윤리적으로 제공해 임상과 기초의학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Special theme

Life Cycle Guide, 모든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다 ❶

알파세대를 위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다

‘알파세대’는 2011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경험하게 되어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세대기도 하다. 알파세대는 지금은 영유아기지만,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 명을 차지하는 주류 세대가 된다. 첫 알파세대가 10대로 들어서게 되는 2020년.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 초등학생 근시 발생 비율

국내 대도시 거주 청소년

약 **97%** 근시

출처: WHO ‘전 세계의 시력 현황 보고서’



생애주기에 따른 ADHD 유병률



청소년(15~19세) **4~8%**
성인(20~65세) **3~5%**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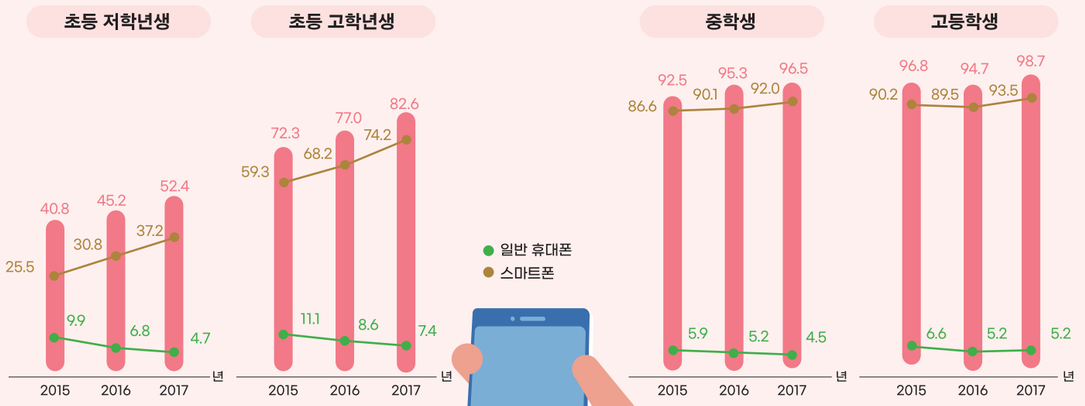
유튜브 세대 **넷플릭스**
2011년 이후 출생
인공지능 스피커
영유아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용 로봇
사교육비 스마트폰
소아비만 학습장애

소아 비만율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율



단위 : %

주: 휴대폰 보유율은 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키즈폰을 포함한다. 이 통계에서는 키즈폰이 제외되었다.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알파세대를 위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다

01
전자기기 자주보는 아이, 눈 건강 괜찮을까?

소아 안과 질환과 치료에 대한 Q&A



글. **임한웅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Q. 출생 후 아이들의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는?

신생아의 경우 생후 3개월에 목표물을 주의 집중해서 보는 주시와 따라보기가 가능하고, 이후 시력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6세가 되면 성인의 시력까지 거의 도달한다. 즉, 아이의 시력 성장은 대체로 만 7~8세경에 완성된다.

Q. 아이들의 시력 저하 또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한 눈 또는 두 눈을 찡그린다, 물건을 가까이에서 본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턱을 위아래로 올려 본다, 눈을 깜박거린다, 눈부심이 심하다, 눈이 몰리거나 벌어져있다, 한 눈만 찡그린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안과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Q. 초등학교 입학 전 반드시 안과 정밀 검사가 필요한가?

성장에 따른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아기 아동인 경우 매년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검진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1세, 3세, 6세 때에는 꼭 전문의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수업과 같이 멀리 있는 칠판이나 디스플레이를 보기 위해서는 시력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안경이 필요한지 굴절 검사와 사시 눈운동 검사, 안저 정밀 검사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시는 아이가 시력 저하를 스스로 표현했을 때는 이미 적절한 치료시기를 지난 경우가 많다. 영유아기에는 자기 표현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안과학회에서는 만 3세가 지났다면 아이를 안과에 데려가 1년에 한 번씩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Q. 안과 질환으로 대표되는 근시, 원시, 난시, 사시, 약시는 어떤 질환인가?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안과 질환으로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이상과 양





시력 발달이 완성되는 7~8세 이후 굴절이상을 진단하게 된다면 약시 치료가 늦은 경우가 많다.

쪽 눈의 방향이 다른 사시가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정상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눈에서 필름 역할을 맡은 망막에 초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굴절이상이라 부르며 근시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경우이고 원시는 상이 망막 뒤에 맺힌다. 따라서 근시일 경우에는 상을 뒤로 가게 하는 오목렌즈 안경이 필요하며 반대로 원시일 경우에는 상을 앞으로 끌어오는 돋보기 안경이 필요하다. 난시는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타원 모양으로 두 경선의 굴절률이 달라 초점이 앞뒤로 맺히는 경우이다.

사시는 양쪽 눈의 시선 방향이 다른 질환으로, 방향에 따라 외사시, 내사시, 상사시, 하사시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가장 흔한 사시는 간헐외사시로 평소에는 괜찮다가 기상했을 때나 피곤할 때, 멍할 때 한쪽 눈이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약시란 눈에 다른 이상이 없는 데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력이 발달되지 않아 안경을 쓰고도 정상시력이 나오지 않거나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두 줄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한다.

Q. 조기에 안과 질환을 발견할 경우 치료는 가능한가?

아이가 시력이 나빠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거나 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안경 착용을 해야 한다. 특히 시력 발달이 완성되는 7~8세 이후에야 굴절이상을 진단하게 된다면 약시 치료가 늦은 경우가 많다.

사시 질환의 경우 내사시에 해당한다면 한쪽 눈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억제가 자주 나타나 약시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헐외사시의 경우 두 눈을 모으는 융합능력이 좋거나 사시 각도가 크지 않은 경우 조기 수술보다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Q. 아이들이 TV, 스마트폰 등에 많이 노출될 경우 정말 시력에 영향을 주나?

근시에서 상이 망막 앞에 맺히려면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률이 높아지거나 필름인 망막이 뒤로 옮겨져야 하는데 근시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눈의 앞뒤 길이가 길어져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뒤로 옮겨지며 발생한다. 그렇다면 TV, 핸드폰을 보면 정말 망막이 뒤로 옮겨져 근시가 발생해 눈이 나빠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핸드폰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자체가 근시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없다. 근시의 원인인 눈의 앞뒤 길이 증가는 물체를 눈 앞에 가까이 가져와 보려는 근거리 작업이 가장 흔한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시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책이든 핸드폰이든 가까이에서 보지 않는 것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야외활동이 근거리 작업을 줄여 근시 억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02
소아 ADHD 의심되는 우리 아이, 스마트폰이 원인일까?

디지털 미디어기기 사용과 ADHD 증상 발병의 관계



글. **김인향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술적 진보와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7%에서 발견이 되는 가장 흔한 소아정신과 질환 중 하나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 3가지 증상을 핵심 증상으로 한다.

1990년대에는 TV나 비디오 게임을 통한 폭력적인 콘텐츠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아동청소년에서 ADHD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폭력 성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장시간, 자주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디지털 미디어기기 사용과 ADHD 증상 발병 간의 상관관계

지난 2018년 JAMA 학술지에는 ADHD와 디지털 미디어(SNS, 온라인 쇼핑, 화상채팅 등) 사용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ADHD 증상이 없는 15~16세 청소년 2,587명을 대상으로 2년간 디지털 미디어 활동 빈도와 ADHD 증상의 정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하였다. 14가지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자주 하는 청소년의 ADHD 발병률은 10.5% 정도로, 이보다 적게 7가지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ADHD 발병률은 9.5%로 조사되었다. 반면 이런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주일 또는 하루에 1~2회에 하는 청소년의 ADHD 발병률은 4.6%로 디지털 미디어 활동 정도에 따라 발병률이 최대 5.9%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만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이 ADHD 증상을 유발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ADHD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극 추구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몰두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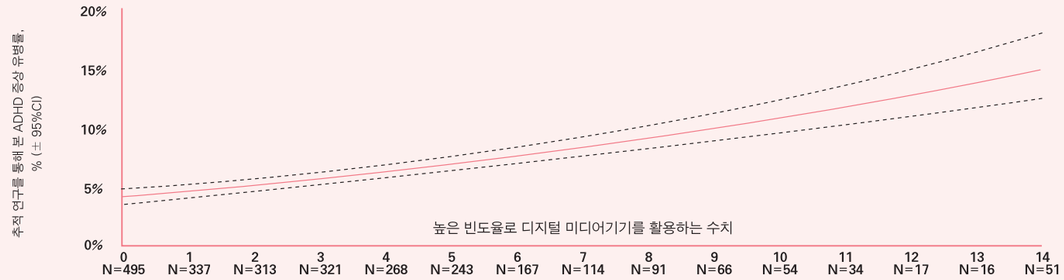
최근의 기술적 진보가 ADHD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ADHD의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

최근의 기술적 진보가 ADHD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를 통한 비약물적 치료가 대안적 치료로 이용될 수가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게임, 가상현실 등의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알킬리 인터렉티브가 ADHD 치료 목적의 게임 EVO를 개발하였고 임상시험을 거쳐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FDA 심사를 통과하면 최초의 질병 치료용 게임이 된다. 348명의 8~12세 ADH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대조군 임상시험에서 실험군은 4주 동안, 주 5회, 30분씩 EVO 게임을 하였고, 대조군은 낱말맞추기와 같은 일반적인 게임을 같은 시간 동안 하였다. 그 결과 EVO 실험군의 주의력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의 노출이 ADHD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고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4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을 보게 한다면 아이 혼자 보게 하지 말고,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디지털 미디어기기 사용과 ADHD 증상 발병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

03
사춘기 성조숙증 바로 알기

성조숙증의 진단과 치료



글. **양승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의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급·만성 질환의 치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 등의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웰빙의 시대적 흐름에 맞춘 진료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관심도 없었던 저신장, 성조숙증, 비만이 이제는 중요한 질환이 되었다. 더구나 자녀에게 올인하는 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를 알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경우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성조숙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4.4배나 발생률이 증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성조숙증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며, 최근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미검증된 자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상 성장과 사춘기

정상적인 성장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나, 주로 신장과 체중의 증가를 의미하며 건강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성장을 조절하는 인자로는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있는데, 유전적 인자가 약 70%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생 후 성장은 약 2~4세까지 출생 전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개개인 고유의 성장을 보이게 된다. 사춘기 이전에는 연간 5~7cm 정도로 꾸준하게 자라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약 2년간 연간 8~12cm의 급성장을 보이게 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여아에서는 가슴이 발달하고 남아에서는 고환의 크기(4mL 이상)가 커지게 된다. 사춘기의 시작은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시작되며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이 분비되게 되어 성선을 자극하면,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이 분비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춘기 시작 연령은 여아 10세, 남아 11세 정도로 보고 있으며, 2차 성징이 이보다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정확한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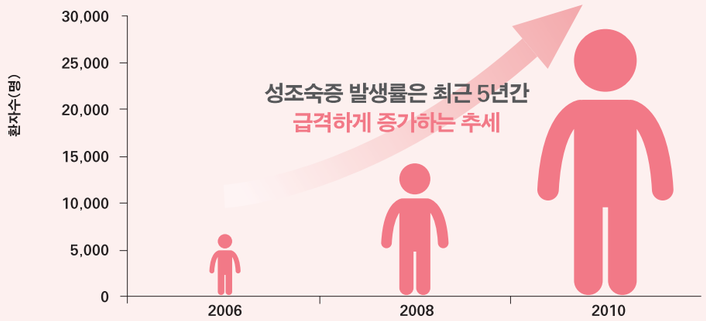
치료의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 성인키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가 필요하다. 사춘기가 오게 되면 여아는 2차 성징과 더불어 급성장이 일어나며, 남아에서는 고환의 크기가 4mL가 된 이후 급성장은 약 1년 후에 일어난다.

성조숙증의 조기 진단과 정밀 검사

앞서 강조했듯 성조숙증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가슴이 발달하는 등 급성장을 보이는 여아,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고환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5학년 전에 급성장을 보이는 남아의 경우 사춘기가 빨리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아 성조숙증의 약 70~80% 정도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남아의 성조숙증은 뇌병변 등의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50% 이상이므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간단한 혈액검사와 손사진(X-선 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고 추가적으로 뇌 MRI나 복부 초음파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를 4주 또는 3개월 간격으로 주사하게 된다. 치료의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 성인키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가 중추성 성조숙증의 치료에 사용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 국내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치료 중단 후 수개월 내에 정상 사춘기 발달을 보이며, 여아의 경우 약 14~16개월 후에 초경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를 시작하면 성호르몬이 억제되어 사춘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며, 성장 속도가 저하되고 골연령은 진행이 느려진다. 여아에서는 유방이 작아지고 남아에서는 고환의 크기 감소 및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든다.

성조숙증 진료 인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자료

04
아이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할까?

나이대별 어린이 건강 주의사항



글. **김진섭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싱그러운 봄, 벚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계절에는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야외 나들이를 하는 가족을 많이 볼 수 있다. 아이가 건강하게 풀밭을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다. 하지만 새롭게 부모가 된 부부는 기쁨과 함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건강에 신경 쓸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된다.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아이 및 부모들이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한다. 나이대별로 꼭 체크해야 할 기본적인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발달, 신체 발육 상태의 확인이다. 2007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이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는 만 6세(71개월)까지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각 시기(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를 놓치지 않고 인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문진 및 평가를 통해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면밀한 진찰 및 신체 계측을 통해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청력과 시력에 대한 문제는 의외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발달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또한 간단한 건강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절한 영양 섭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쓰는 것 또한 부모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항목이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에서 때늦은 A, B 형 독감으로 인해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확인해보면 독감 예방접종을 매해 시기에 맞춰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경우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원의 접촉이 잦고,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감염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생 후부터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방 접종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렴구균, 홍역, 볼거리, 수두, 일본뇌염, A형 간염 및 매해 독감 접종 등을 권장된 스케줄에 따라 모두 접종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 빠진 것이 있다면 인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완료하도록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사용 및 기침 예절, 손씻기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이에 맞게 체중이 잘 늘지 않거나 잦은 감염성 질병을 앓는다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동기(학령기)인 만 6~12세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매년 신체계측을 하게 되며 3년마다 학생건강검진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신체적으로 눈에 띄게 빠른 성장이 나타나며 학교에서 또래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신·심리적으로도 성숙하는 시기이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영양 공급은 필수적이며 부족한 영양소는 없는지 식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고열량의 인스턴트 식품 및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권고해야 하고 나이에 맞게 체중이 잘 늘지 않거나 잦은 감염성 질병을 앓는다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수면 및 운동은 학업생활 및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외부 신체 활동을 늘려주고 휴대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길지 않게 하며 특히 밤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고 생각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증가한 비만세포가 줄어들지 않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지혈증 및 당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검진 항목		해당 월령						
		4-6 개월	9-12 개월	18-24개 월	30-36 개월	42-48 개월	54-60 개월	66-71 개월
문진(청각 및 시각 포함)		●	●	●	●	●	●	●
진찰		●	●	●	●	●	●	●
신체 계측		●	●	●	●	●	●	●
발달 평가			●	●	●	●	●	●
건강 교육	안전사고 예방	●	●	●	●	●	●	●
	영양	●	●	●	●	●	●	●
	수면	●						
	구강		●				●	●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치과 기관)				●		●	●	

※ 1차 구강 검진(18~29개월), 2차 구강 검진(42~53개월), 3차 구강 검진(54~65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E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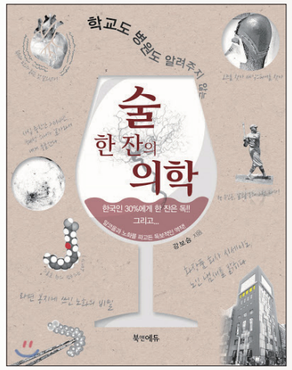


“술에 대한 오해, 이제 그만 풉시다”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저자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강보승 교수는 적당한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 체질에 맞지 않는데도 술을 마시는 한국인의 잘못된 술 문화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리. **염세권** 사진. **김지원**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5년 신경학 교수들이 세계적인 의학잡지 〈뉴롤로지(Neurology)〉에 한 연구를 발표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연구는 ‘애주가들에게 희소식’ 등의 제목으로 미디어에 소개되며 이슈를 모았다. 이 소식을 접한 강보승 교수는 〈뉴롤로지〉에 해당 연구를 반박하는 메일을 보냈다. 한국인의 체질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였기 때문이다.

알코올이 인체에 흡수되면 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탄소사슬에 활성산소가 붙은 A급 발암물질이다. 이 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것이 ‘알코올 분해 2번 효소’이고, 한국인의 30%는 이 효소가 유전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이 효소가 약한 사람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알데히드 수치가 높아져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한두 잔 술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술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연구는 곧 상식이 되었다. 환자들 중에는 효소가 약해서 얼굴이 붉어지는데도 건강을 위해 매일 한두 잔씩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술이 몸에 좋다고 오해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서 짬이 날 때마다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완성했다.

모두 함께 바꿔가야 할 음주 문화

“몇 년 전 50대 남성이 실신한 채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 분도 알코올 분해 2번 효소가 약해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이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소주 한 병을 ‘원샷’했던 거예요. 알코올 분해 2번 효소가 약한 사람의 경우 알데히드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기관지 경련이 일어나 숨을 쉬기 힘들어지고, 혈압이 떨어져 실신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에 대해 잘 모르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술을 접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는 시점인데, 이때 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계나 보건계 어떤 곳에서도 20대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영화, 드라마에서는 술 마시는 장면이 다수 노출되고, 연예인들은 주량을 자랑한다. 이런 잘못된 음주 문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바꿀 수 있다.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에서 시작한 그의 연구는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숙취와 노화의 교집합에 알데히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 속 잘못된 의학상식들이 우리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시간을 쪼개 연구에 매진하는 강보승 교수. 그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우리 삶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김사부가 전하는 의사의 낭만과 응급실 이야기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와 중증외상

방영 몇 회만에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매회 자체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는 의학 드라마.
'김사부 신드롬'을 일으키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듬뿍 받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로 실려오는 중증외상 환자들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정리. **편집실**

"최고의 의사? 지금 이 환자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골절을 치료해 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매력은 명대사다. 배우 한석규가 분한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의 촌철살인 멘트는 이미 지난 2016~2017년 방영된 시즌1에서 많은 팬들을 열광하게 했었다. '의학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낭만닥터 김사부는 인생 드라마다',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 펼칠 명품 연기와 명대사가 기대된다', '방영 2회 만에 김사부앓이 중'이라며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와 호평도 대단하다.

드라마의 주요 배경은 중증외상센터, 응급실이다. 극의 배경과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상 중증외상 환자가 많이 등장한다. 시즌2 초반의 주요 에피소드로 등장한 질환도 중증외상으로 이송된 국방장관에 대한 이야기였다. 교통사고로 큰 외상을 입은 국방장관을 치료하기 위해 김사부는 CT를 찍어보지도 못하고 데미지 컨트롤으로만 위급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실로 직행한다. 옆에서 누군가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김사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술대 앞에 선다. 극적인 요소가 더 들어갔지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갈등과 주인공의 소신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김사부가 말하는 '의사의 낭만'은 무엇일까? 그것은 김사부의 대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거야"라며 후배에게 일갈하는 장면에서 그가 추구하는 낭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본질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일의 본질을 잃고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 속에서도 생명을 마주한 의사가 절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념이든, 사명감이든, 책임감이든 변하지 않는 김사부의 태도는 그래서 묵직한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증외상 환자와 골든타임의 이해

글. **오재훈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환자는 3단계 분포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손상 직후 수초~수분 이내로 질식이나,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제일 큰 분포를 보인다. 사고 즉시 신고되어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도(평균 7분, 서울권) 어쩔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조심이 중요하다. 3단계는 외상환자가 응급 수술 및 처치를 받은 후 1~5일 정도에 사망하는 경우다. 이 시기에는 출혈과 장기 손상 등으로 중요한 장기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도 합병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단계지만, 전체 환자 중에서는 가장 적은 분포를 차지하며, 의학의 발전과 적용으로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학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중증외상 장면들은 사고 후 수분에서 대개 1시간 이내 폐나 심장이 손상되어 흉곽 부위에 다량의 출혈이 있거나, 간, 비장, 콩팥 등의 열상 및 복부 혈관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환자들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신속한 구조와 진단, 응급처치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이송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2단계(골든타임) 환자들의 사례들이다.

응급실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평가와 조기 진단

응급의료센터에 중증외상 환자가 도착하면 의료진은 신속히 알파벳 A-B-C-D-E 순서에 따라 일차 평가를 진행한다.

A(Airway)는 목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며, 기도유지를 하여 환자의 숨길을 확보해 준다.
B(Breathing)는 숨길은 확보되었으나, 편안하게 잘 쉬는지, 소리는 괜찮은지, 산소는 부족하지 않은지 판단해 알맞은 보조를 해준다.
C(Circulation)는 몸에 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평가하고, 출혈이 보이는 곳은 지혈을 해주며, 수액 공급을 해주며, 수혈 공급을 고려한다.
D(Disability)는 의식을 포함한 다른 신경학적 검사를 한다.
E(Exposure and Environment)는 옷을 제거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응급의학과 의사 및 의료인이 참여하여,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신속한 진단과 환자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엑스레이와 침상 옆 초음파만을 검사하여 중증 손상을 진단하고, 응급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학 드라마에서 자주 노출되는 기관 내 삽관, 반지방패연골절개술, 바늘 흉강삽관술, 심장막천자술 등이 이러한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응급실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 제공

환자가 안정된 상태면, 좀 더 자세한 평가와 추가적인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고, 출혈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혈 부위의 혈관을 막아주는 중재술을 하거나, 외상외과 의사가 수술방으로 직행하여 수술을 하게 된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2단계 중증외상 환자의 사례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드라마 속 인물과 같은 괴짜 천재 의사는 없지만, 모든 의료진은 내원하는 환자에게 집중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치료를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뿌리가 튼튼한 병원 “안과 질환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 양평제일안과

누군가 옳은 선택을 했고 자신의 역할을 잘해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함께하는 이들의 표정과 태도가 증명한다. 튼튼히 자리잡은 뿌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꽃과 과실을 맺듯이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선택은 오랫동안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한다. 양평제일안과를 개원한 박병우 원장의 선택이 그랬다.

글. **권찬미** 사진. **박찬혁**

“사람의 눈을 자세히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눈동자 색도 크기도 미묘하게 다르죠. 학생 시절 느꼈던 아름다운 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저를 안과 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양평제일안과의 시작은 박병우 원장이 ‘눈’에 반한 것에서 부터 시작했다. 의과대학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에게 주변 교수님과 선배들은 대학병원 교수직을 추천했지만, 그의 뜻은 달랐다.

“처음부터 개원이 목표였어요.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고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을 꿈꿨죠. 시력교정 수술처럼 자본이 크게 들어가는 비보험 시술을 하는 병원보다 환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질병을 다루는 동네병원을 하고 싶었어요.”

양평제일안과는 2006년 3월 개원해 어느덧 15년 차를 맞았다. 양평은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난 지역이다. 남한강이 흐르고 산과 들을 품은 아름다운 양평은 시골장터의 생동감과 인정이 넘치는 도시라고 박 원장은 말한다.

“개원 당시 내원했던 손님들을 지금까지 진료하고 있어요. 서울 근교에 후보지 중 안과병원이 부족한 지역을 선택해서 왔고, 양평이 그 중에서도 애정이 갔던 정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일까. 병원에도 특유의 활기가 가득했다. 병원 입구부터 환하게 환자를 맞이하는 각각 15년 차, 11년 차, 7년 차 근속에 이르는 간호사들은 쾌활한 미소로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과 시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희 병원이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도 환자를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있어 더 신뢰가 생겼고 인연이 공고해졌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관심을 갖고 대하는 자세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지요. 저와 직원들 모두는 환자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양평제일안과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인연은 개원의 연수강좌로 맺어졌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개원의 연수강좌는 지역 일대 병의원 원장들의 교류와 학술의 장이다.

“개원의 연수강좌에서 젊은 교수님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열정이 있고, 결과가 좋으니 개인병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자연스럽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신뢰하며 환자를 요청드리게 되었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양평제일안과는 앞으로 또 어떤 열매를 맺을까. 박병우 원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양평은 상급병원과의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해야 하는 질환은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환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질환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제일안과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31 **문의** 031-771-4275

DOCTOR OPERA

닥터 오페라



쥘 에밀 마스네 오페라《타이스》중 〈명상곡〉

Jules Émile Frédéric Massenet Meditation from《Thais》

신앙과 향락의 갈림길에서 갈등

1894년 초연된 오페라《타이스》는 프랑스 대문호 아나톨 프랑스의 소설에서 소재를 얻은 것으로, 퇴폐와 향락에 빠진 무희 타이스와 그녀를 구원하려는 수도승 아타나엘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오페라이다. 이 오페라는 모두 2막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곡은 2막의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이다. 제2막에서 향락에 젖어 방탕한 생활을 거듭해 오던 타이스는 호화로운 방안에서 거울에 비친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늙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생활에 염증을 느낀다. 이때 수도승 아타나엘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방탕한 생활을 접고 신앙의 세계로 귀의하라고 설교한다. 타이스는 그의 진심어린 호소에 감동하면서도 한편 그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고, 갈등하면서 2막 1장이 끝난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타이스가 향락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장면에서 연주되는 곡이 바로 〈명상곡〉이다. 이 곡은 이와 같은 타이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경건한 선율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다.

〈명상곡〉의 원곡은 오케스트라 곡이지만, 선율이 우아해 바이올린 독주용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는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과 관능적인 하모니는 마스네의 뛰어난 음악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조용하고 정갈한 분산화음에 실려서 서정적이고 고아한 주제선율이 노래된 후 점점 이 선율이 변형되어 간다. 중간부에 이르러 감정이 격해지면서 마지막 부분은 다시 침잠하는 듯 점점 약해지다 종교적 명상에 잠기며 꺼질 듯이 사라져 간다.

갈등 후 타락했던 생활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선택한 타이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아타나엘은 그녀와 작별한 후 타이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방황하게 되고 결국 수도원에 있는 그녀를 다시 찾아간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아타나엘은 그녀를 품에 안고 미친듯이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둔다.

리옹 근처 몽토에서 출생한 마스네는 파리 음악원에 입학, 피아노와 작곡 등을 수학한다. 1863년 로마대상을 받고 이탈리아에서 유학한 후 오페라 작곡에 전념하여 오페라《라올의 왕》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친구 비제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 후《마농》,《베르테르》,《타이스》 등의 걸작을 발표하면서 오페라 작곡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오페라 이외에 관현악곡, 가곡, 피아노곡, 종교음악 등도 있으며 섬세하고 감각적이며 인상적인 것이 그의 음악의 특징이다.

제1막 제1장 4세기말 이집트 나일강변 수도승의 움집 노승 팔레몽과 여러 승려들이 저녁식사를 할 때 아타나엘이 힘없이 들어오며, 그곳 알렉산드리아는 아름다운 무희 타이스 때문에 타락하고 있다며 침통해 한다. 잠자리에서 그는 군중 앞에 반나체의 모습을 한 타이스의 꿈을 꾸고 놀라 깬다. 잠시 후 아타나엘은 타이스를 회개시키기 위해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떠난다. **제2장 알렉산드리아 니시아스의 집** 아타나엘이 방탕한 부자 친구인 니시아스에게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를 타이스를 위해 베푸는 향연에 초대한다. 타이스가 나타나자 아타나엘은 그녀에게 신앙의 기쁨에 대해 말한다. 그녀가 귀담아 듣지 않자 아타나엘은 그녀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제2막 제1장 타이스의 집 타이스는 퇴폐 생활의 권태를 느끼게 되고, 아타나엘의 말을 생각하며 아리아 '거울의 노래'를 부르고 이어 아타나엘이 나타난다. 이때 〈명상곡〉이 연주된다. **제2장 타이스의 집 앞** 타이스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불태운 후 사막의 길을 떠난다.

제3막 제1장 타이스는 아타나엘을 따라 사막을 넘어 수녀원을 향한다. 수녀원에 도착한 아타나엘은 원장에게 타이스를 맡기고 이별을 고한다. **제2장 수도승의 움집** 아타나엘은 타이스를 구제하였지만 자신이 그 사랑에 번민하고 있다고 노승 팔레몽에게 고백한다. 아타나엘은 꿈속에 타이스의 환영이 나타나자 다시 사막으로 뛰어나가는데, 이때도 〈명상곡〉의 선율이 연주된다. **제3장 수녀원 정원** 빈사 상태의 타이스가 누워 있고, 수녀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때 아나타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서 타이스에게 고백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둔다. 아나타엘의 절규와 함께 막이 내린다.

들을 만한 Album



마이클 레빈(바이올린),
펠릭스 슬래스킨(지휘)
할리우드 보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Capital, 1959)



안네-소피 무터(바이올린),
제임스 레바인(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 1993)



미샤 엘만(바이올린 독주),
요세프 자이거(피아노)
(Vanguard, 1959)



장영주(바이올린),
플라치도 도밍고(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MI, 2003)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양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 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DOCTOR MOVIE

닥터 무비



내 인생의 영화 4

되풀이되는 특정 사조의 영화들, 우연인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현 정국에 실망한 부동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절대적 시점이다. 광장의 아우성에서 시작되어 탄핵으로 정점을 찍은 채 탄생한 정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목소리를 높인 민의일 것이다. 같은 배를 탔지만 서로 비난하기에 바빠 상대방과의 타협과 상생을 배신과 변절로 해석하게 되어 버린 정치인들에게 예술의 경지에 올라서야 하는 정치라는 생물은 화석으로 변해버렸다. "두려워서 타협하진 않겠지만 타협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고언이 생각난다.

영화는 시대정신(Zeitgeist)을 관통하는 동시에 한 시대의 조류를 이끌어나가는 탈이념적 성격의 대중 예술이어야 한다는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권에 따라 특정 영화사조가 유독 많이 제작되거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의혹은 뿌리치기 힘들다.

북한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대륙간 탄도탄(ICBM) 6기를 미국에 인계하는 선포식을 생중계하던 날, 백두산은 활화산이 되어 폭발한다. 4개의 층으로 구성된 용암이 차례로 분출하는데, 첫 폭발에서 평양과 서울의 고층건물은 맥없이 쓰러지고 도시는 아비규환이 되어 버린다. 우람한 체격의 한국계 미국인 지질학자는 마지막 네 번째 폭발이 치명적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백두산 지하갱도에서 핵폭탄으로 맞폭발을 일으키면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를 독단적으로 허가하고 특전사의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킬 것으로 명령한다. 이 작전에는 함정이 있었으니 북한에 수감 중인 무력부 소속 이중 스파이 리준평을 감옥에서 꺼내 협업해야 하는 것이었다.

〈백두산, 2019〉은 올스타 캐스팅의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허술한 이야기 전개(북한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응책은 보이지 않으며,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존재감은 없다. 중국은 조폭 같은 요원들이 ICBM탈취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작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없이 우유부단하고 어쩔 줄 모르는 특전사 전역 예정 대위 하정우와 플랜 B도 없이 사지에 몰아넣으며 서울에서 무전으로 호통만 치는 지휘부 이경영 등)와 미스 캐스팅(마동석이 몸이 아닌 머리를 쓰는 지질학 교수를 연기한 것이 허를 찌른 한 수 였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오랄 액션인지도..)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평점을 잘 설명해준다.

이 영화에는 최근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소재가 된 악당 미군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미국 고위관료, 아메리카 퍼스트가 등장한다. 미군은 백두산 폭발로 인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는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북한 땅에서 우리 특전사와 총격전을 벌이며 오로지 ICBM을 빼앗는 데에만 몰두한다. 국내 거주 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총을 든 미군들의 눈에는 임산부도 보이지 않는지 무작정 접근하면 발포할 것이라는 경고방송만 내보내고 있다. 〈강철비, 2017〉에서도 미국은 한국 대통령을 윽박지르고 유사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택할 거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을 소재로 한 최근 영화는 카리스마 넘치는 진지한 북한 요원과 덜 떨어진, 그러나 인간미 넘치는 대한민국 경찰, 요원 등을 내세워 인도주의가 넘치는 가슴 뭉클한 동포애(결국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 요원이다)를 발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절대적인 혈맹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웃이 최고라며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중국에게 유화적 제스처와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고위층의 언행은 이러한 반미적 성향과 맞물려 묘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18년 절대권력자의 최후는 어떨까? 근래 들어 역사적 팩트에 허구를 가미한 유사 역사인 팩션(faction)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여 기록만을 담아 내는 시네마 베리테와 역사적 사실을 반허구적으로 묘사하는 다큐드라마 형식을 일부 차용(흑백 뉴스, 육성이 포함된 인터뷰 등)하게 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남산의 부장들, 2018〉은 10. 26 사태 이전의 40일간을 다룬 영화로서 캐릭터(필연성 포함)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다. 절대자의 아래에서 2인자가 되기 위해 매사에 충돌하는 두 명(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과 전임 중앙정보부장의 해외망명 이후 폭로 건에 대한 대응, 부마항쟁에 대한 상반된 견해 등에 대한 평가를2인자인 중앙정보부장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영화에서는 졸렬하고 귀가 얇은 권력자와 무식하고 저돌적이지만 절대충성하는 두 명의 악인이 등장하고 역사의 이름으로 이를 처단하려는 양심적인 2인자의 인간적 고뇌가 그려진다.

역사적 맥락의 고려없이 1인칭 시점에서 사건 전 특정기간만을 좇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판도라, 2016〉 개봉으로 탄력을 받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을 목도한 뒤이기 때문에 괜한 기우가 아니길 바라는 것은 나만의 노파심일까? 역사는 원래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재조명되는 일을 수없이 보아왔고, 역사만큼 전후 좌우 관계가 중요한 현상은 없다는 것을 이 나이 먹으면서 체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차별적인 파급력으로 말미암아 문화예술은 천편일률적인 방향성을 띄면 위험하므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담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볼 만한 MOVIE



백두산(2019)
이해준, 김병서(감독)
이병헌(리준평), 하정우(조인창), 마동석(강동래), 전혜진(전유경), 수지(최지영)



남산의 부장들(2020)
우민호(감독)
이병헌(김규평), 이성민(박통), 곽도원(박용각), 이희준(곽상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전도유망한 미국 화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은?

미국 화가 조지 웨슬리 벨로우스와 복막염



글. **김한준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미국 화가 조지 웨슬리 벨로우스는 20세기 미국 화가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하지만 1825년 뉴욕시에서, 천공된 충수염을 치료하지 못하고 복막염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좀 더 오래 활동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주제와 화풍이 변화해
더욱 다양하고 훌륭한 많은 작품을 남겼으리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George Wesley Bellows

화가 조지 웨슬리 벨로우스가 앓은 질환 '복막염'은 말 그대로 복막의 염증을 말한다. 매우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일반인에게 복막이란 무엇인가? 염증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듣게 된다. 복막은 복부에서 복강과 복부 장기들이 둘러싸는 가장 안쪽 벽이다. 이는 얇은 막과 같은 구조로 복부와 외부를 나누는 경계이다. 복막이 둘러싼 공간을 복강이라 하고 이 안에 복부 장기들이 위치한다. 복막에는 감각신경이 분포하여 통증을 느낀다. 한편, 염증은 인체가 여러 가지 자극(병균, 손상, 또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면 이에 대응하여 인체의 면역세포, 혈관, 그리고 화학적 매개체 등이 관여하여 일어나는 반응이다. 쉽게 말하면 인체에 가해지는(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이 아닐 수도 있다) 자극에 인체가 반응하는 정상적인(정상을 넘어선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다) 반응이라는 것이다. 염증은 열감, 붉어짐, 부종, 동통과 함께 기능의 이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복막과 염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복막염도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복강에 균을 포함한 어떠한 자극(위액, 담즙의 노출 등 균이 없는 화학적 자극을 포함)이 가해졌을 때 복막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복막염이다. 복강은 정상적으로는 균이 없는 공간이다. 복강 내의 장기 중 소장과 대장의 내부에는 균이 있을 수 있으나 장관 밖의 복강은 균이 전혀 없는 공간이다. 임상적으로 대부분의 복막염은 복강 내에 균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막에는 신경이 있으므로 복막염은 통증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충수염(흔히 맹장염으로 알고 있는)이나 게실염, 위장관 천공 등에서 균주를 포함한 깨끗하지 않은 물질들에 노출되면 매우 심한 복통을 느끼게 된다. 통증과 함께 열이 나고 장관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오심, 구토 등을 유발한다. 염증의 범위가 넓으면(범발성 복막염) 그에 비례하여 많은 염증 물질로 인해 전신 상태의 저하(이를 테면 패혈증) 등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패혈증은 말 그대로 피가 부패한다는 의미로 혈액 내에 병원체가 숙주의 면역체계를 이기고 번식하여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에 빠져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충수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의료시스템이 발달한 현대 국가에서는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이 되었으나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수의 천공으로 복막염이 진행되고 예전에는 사망할 수 있었던 '위중한' 질환이었다. 충수염 이외에도 담낭염, 위,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 등 소화관 내용물의 유출로 복강이 오염되면 복막염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복막염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개복하여 복막염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교정하고 복강 내 오염을 세척하면 많은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충수절제술은 마취를 하고 복강경을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고 시행한다

외과의로 일한 20여 년간 정말 많은 충수절제술을 했다. 현대 의학에서는 비교적 '쉬운' 질병인 충수절제술은 과거 1846년 이전에는 전신마취가 시행되지 않은 채 절개를 했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꽉 잡고 있기 위해 수술에는 많은 조력자가 필요했다고 한다. 최근 대부분의 충수절제술은 마취를 하고 복강경을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고 시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렇게 '쉬운' 질병인 충수절제술에도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후배들은 어떤 치료방법을 배우게 될까? 의학은, 외과는 아직도 발전 중이다.

주목할 만한 연구

위장관 천공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내시경적 치료방법



연구자. 이항락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 누출, 천공 및 천공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클립 시스템의 효과: 한국 다기관 연구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 공식 학회지인
『Clinical Endoscopy』지에 실린 'Efficacy of the Over-the-Scope Clip System for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Fistulas, Leaks, and Perforations: A Korean Multi-Center Study'중에서

위장관 천공 및 수술 후 문합부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검진 및 검진 사업의 확대로 인해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다. 내시경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지만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 될 수 있는 검사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장천공이다. 장천공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응급개복술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일차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변 주머니를 가지고 지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외과질환으로 인해 위나 대장을 절제한 후 그 문합부가 치유되지 않아 문합부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후 문합부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2차 감염 등이 발생해 즉각적인 봉합치료를 못하는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문합부 유출이 있는 경우 재수술이 원칙이나 다시 개복술을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따라서 수술 후 문합부 유출이나 대장 천공 발생 직후 내시경으로 천공을 봉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의 클립을 이용한 내시경 봉합술은 성공율이 50% 정도이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하여간 수술 후 문합부 유출이나 진단내시경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천공은 최악의 경우 환자가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한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관련 의료인은 법적인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OTSC라는 새로운 클립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내시경 흡입기를 이용해 좀더 확실한 봉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OTSC를 이용한 봉합술의 효과를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한 논문이다. 총 19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환자의 평균연령은 56세 였다. 19명 환자 중 16명은 수술 후 문합부 누공 환자였으며, 2명은 진단대장내시경 시 발생한 천공환자, 1명은 식도천공 환자 였다. 평균 시술 시간은 10분이었다. 대상 환자 19명 중 14명(74%)의 환자에서 추가 치료 없이 OTSC 클립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시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은 없었다. 시술 후 평균 502일 간 추적관찰 중이며 누공이나 천공의 재발



그림1. OTSC 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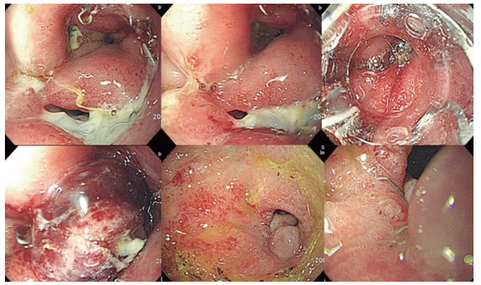


그림2. 위공장 문합부 누출 환자에서 OTSC 클립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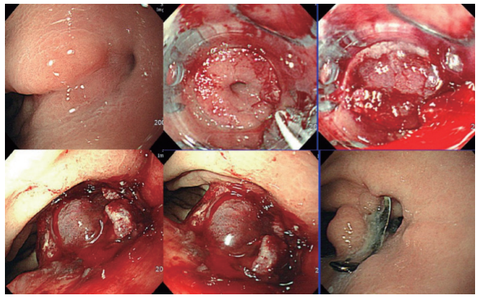


그림3. 만성 위 기관지 누공환자에서 OTSC 클립 치료

은 없었다. 그림 1은 OTSC 클립으로 쉽게 설명하면 동물 덫과 같이 내시경 선단부에서 흡입기를 사용해 발사하면 천공부위를 봉합해 주는 원리이다. 그림 2는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에 위공장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환자이다. 문합부 누출 부위에 OTSC 시술 후 문합부 누출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림 3은 폐암 수술 후 발생한 만성적인 위 기관지 누공 환자로 시술 후 누공이 치료되었다.

이번 연구는 19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이나 국내 최초 연구이며 향후 이 클립 방법이 문합부 유출, 천공의 내시경 치료의 표준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연구이다. 현재 국외에서는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의료보험 급여가 가능해져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OTSC 클립이 문합부 유출 장천공 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장관 치료의 치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Remarkable research



ORIGINAL ARTICLE
Clin Endosc 2019;52:67-80
https://doi.org/10.5946/ce.2018.077
Print ISSN 2234-2400 · Online ISSN 2234-2443

CLINICAL ENDOSCOPY

Efficacy of the Over-the-Scope Clip System for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Fistulas, Leaks, and Perforations: A Korean Multi-Center Study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Copyright © 2019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Efficacy of the Over-the-Scope Clip System for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Fistulas, Leaks, and Perforations: A Korean Multi-Center Study'

위장관 누출 천공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클립 시스템은 추가 수술적 치료 없이 위장관 누출 및 천공 치료에 있어 효과적이었다. 이 연구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 학회지인 『Clinical Endoscopy』지에 실렸으며 2019년 추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에 대한 궁금증 Q&A



글. **김봉영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궁금증 Q&A

Q. _____

독감, 감기, 코로나19의 증상을 구분할 수 있나.

감기나 독감, 코로나19 모두 고열과 기침, 인후통을 주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 조차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바이러스 특징 중 하나가 증상이 명확하게 시작되기 전부터 활발히 배출되는 것인데, 열, 기침이나 목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가족을 통해 편의점에서 일반 감기약을 먹고, 2~3일 경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Q. _____

코로나19는 주로 노인들에게 더 위험한가 어린이들이 더 위험한가.

새로운 바이러스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염을 시킬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 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때문에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볼 때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_____

선별검사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2차 검사에서 음성이 양성으로 바뀌기도 하던데.

채취한 검체를 이용하여 PCR이라는 검사를 수행하는데, 검사 수행에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고, 검체를 이동시키고, 검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8시간 이상, 길게는 24시간까지 소요된다. 2차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바이러스 배출이 적은 초기에 검사해 음성이 나왔다가 배출이 많아졌을 때 검사해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 또는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에서 채취해 음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또한 검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Q. _____

코로나19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코리아필터(KF) 수치가 몇 이상인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마스크 부족 사태로 중복 사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한 번만 착용하고 버려야 하나.

코로나19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비말(침방울과 분비물)로 감염된다. 즉 바이러스 입자가 크기 때문에 KF80의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미세한 수준까지 차단하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스크는 잘 관리하면 여러 번 착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바이러스는 마스크 앞부분에서 필터링 되므로 앞부분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쓰고 벗으면서 다른 영역을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좋다.



오해와 진실 OX

손 씻기 대신 장갑 착용 예방 효과 있을까?

아무리 좋은 멸균 장갑을 끼더라도 장갑 표면이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고, 벗는 과정에서 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식사하는 과정에서 옮을 수 있나?

코로나19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염자와 함께 식사한다면 비말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비타민D가 예방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D 복용이 코로나19는 물론 폐렴이 좋아진다는 근거는 없다. 특정 식품이나 영양제를 과도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방문해도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열과 소독약제에 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소독 절차에 의해 소독한 경우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글은 방역 효과가 있다?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점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설령 구강 내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도 감염증을 막는 효과는 없다.

항생제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약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까?

주기적인 식염수 세척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열 감지카메라로 모든 감염자를 찾을 수 있는가?

체온 스캐너가 일부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은 되나, 뚜렷하게 발열이 없으면 알아낼 수 없다. 출입구 앞에 설치돼 주변 기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내열성에 약해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예방에 좋다?

열에 약하므로 뜨거운 물을 마시라는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유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도 감염될 수 있나?

최근 홍콩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볼 수 있듯 애완동물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애완동물에게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감염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동물마다 호흡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수용체가 다르므로 동물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어 인간에게 재전파 시킬 확률은 높지 않다.

옷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고 난 뒤 옷에 남은 바이러스가 또 다른 감염을 발생시킨다?

바이러스는 옷에 남은 상태로 오래 살지 못한다. 우려가 된다면 세제를 사용해 섭씨 60도에서 90도 사이의 온수로 세탁하면 된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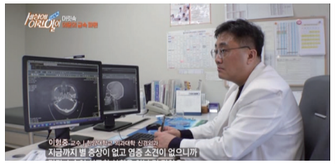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강보승 교수**
학교로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 강보승 지음.



쿠키건강TV **이항락 교수**
위벽 파고들어 생존 위협하는 암세포, 증상 없어 우연히 발견… "신규 발생 건수 1위 위암, 조기진단으로 완치"



KBS Radio 건강365 **전형준 교수**
퇴행성 척추질환



SBS 세상에이런일이 **이형중 교수**
머릿속 의문의 금속 파편

On-Air



TV조선 건강다큐 **김희진 교수**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혈관에서 답을 찾다



국방FM **장호준 교수**
금연



KBS 1TV 아침뉴스타임 **강형구 교수**
"울음소리 자주 들렸다"…숨진 아이에게 벌어진 일은?



SBS 8뉴스 **박동원 교수**
우한 코로나, '치명적 폐 손상' 확인…中 보고서 입수

한양대학교병원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2월 13일 / 부인암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쿠키건강TV [체크리포트] 12월 18일 / 위벽 파고들어 생존 위협하는 암세포, 증상 없어 우연히 발견…"신규 발생 건수 1위 위암, 조기 진단으로 완치"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SBS [세상에 이런일이] 1월 9일 / 머릿속 의문의 금속 파편 김희진 신경과 교수 TV조선 [건강다큐] 1월 11일 /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혈관에서 답을 찾다 전형준 신경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월 13일 / 퇴행성 척추질환, 1월 30일 / 척추관협착증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KBS 1TV [아침뉴스타임] 1월 17일 / "울음소리 자주 들렸다"… 숨진 아이에게 벌어진 일은? 장호준 흉부외과 교수 국방FM [조갑경의 오늘은 좋은날] 1월 17일 / 금연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BS [8뉴스] 1월 23일 / 우한 코로나, '치명적 폐 손상' 확인… 中 보고서 입수, [모닝와이드] 1월 24일 / 하얗게 변한 폐… 우한 코로나 '치명적 폐 손상' 확인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국방FM [조갑경의 오늘은 좋은날] 1월 24일 / 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희윤 안과 교수 채널A [뉴스] 12월 7일 / 실명의 시작 '황반변성' 집.중.분.석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12월 27일 /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CBS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1월 1일 / "맥주 한 잔에도 혹당무? A급 발암물질 공격신호"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2월 27일 / 통풍, 1월 7일 / 류마티스관절염

2019년 12월 17일(화)



2019년 1월 14일(화)



NEWS
News Paper

2020년 1월 21일(화)

2019년 12월 13일(금)

한양대학교병원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3일/ 앉아서 한 발로 못 일어나면 '운동기능저하증후군'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1월 14일/ 자도 자도 피곤해… 6개월째 '파김치' 방치했다간 큰 코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6일/ 잠 못 이루는 당뇨병 환자 많다는데… 조정기 비뇨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월 28일/ 시알리스를 매일 먹는 사람들…"치료가 목적입니다" 배재만 산부인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23일/ 치아 스케일링 독감 · HPV 백신 정신건강 검사 연내 챙기세요 김진섭 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22일/ 어릴 때 찐 살, 크면 키로 간다 ×… 성인 돼서도 비만 가능성○ 김승현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12월 17일/ 가장 잔인한 병, 루게릭… "혈액으로 병 진행 예측 가능", 한국일보/ 1월 14일/ 일상 속 치매 예방하려면…'진인사대천명' 지켜라! 김희진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1월 14일/ 일상 속 치매 예방하려면…'진인사대천명' 지켜라!, 한국일보/ 12월 31일/ 새해에도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독서로 뇌 운동, 걷기로 혈관 건강 백광흠 신경외과 교수 동아사이언스/ 1월 9일/ "늘어나는 의료분쟁, 한국형 의료감정 가이드라인 나와야"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중앙일보/ 1월 7일/ 고혈압치료제 '구관이 명관?' 베타차단제 한국인 효과확인, 조선일보/ 1월 7일/ 메나리니 "베타차단제, 맥박 빠른 젊은 고혈압에 유용"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월 21일/ 겨울 산행 '저체온증' 경계를… 날 풀릴 때 더 위험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조선일보/ 1월 7일/ 적극적 性생활 탓?… 남성 구강 공격하는 'HPV'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1월 8일/ 코 안고는데 일어나면 찌뿌둥..혹시 수면무호흡증?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1월 8일/ 잠 못 이루는 밤…내 잠도둑 너였다니, 아시아경제/ 1월 23일/ 작심삼일을 작심삼일하라 엄지은 혈액종양내과 교수 한국일보/ 12월 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속속… 불치병에 도전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1월 29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속속… 불치병에 도전, 헤럴드경제/ 1월 29일/ 노인성 폐렴 예방, 독감 백신 접종부터, 손장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국일보/ 12월 10일/ COPD 치료하는 국내 첫 LAMA/LABA 복합 기관지확장제 '아노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23일/ 기업들도 발벗는 치매정복… 신약 도전, ICT로 예방 관리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1월 1일/ "술은 마시면 늘어" 이 말이 위험한 이유, 매일경제/ 12월 16일/"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펴내 한승훈 재활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13일/ 뭉친 어깨 · 종아리에 지그시… 찌뿌둥할 때 '마사지 볼' 써보세요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1월 14일/ 일상 속 치매 예방하려면…'진인사대천명' 지켜, 한국일보/ 12월 3일/ 정신질환 의료인, 3년마다 신고 의무화… 의사들 "편견 부추기는 인권침해" 반발

HANYANG NEWS

2020년 1월 ~ 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베트남 떠이빈서 해외 의료봉사



본원은 지난 1월 14일부터 4일간 베트남 빈딩성 떠이빈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단은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를 의료팀장으로 소화기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으로 구성된 총 12명으로 베트남 빈딩성 떠이빈면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약 1,600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한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 지역은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며 "의료봉사를 통해 본원의 설립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해외에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신뢰받는 병원 되자" 시무식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고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객 중심 병원 만들기를 다짐하며 '2020년 신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새해 인사와 신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020년은 의료원 백년대계를 향한 변화와 도전에 우리 모두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올해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육성사업 외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기대되는 해"고 말했다.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본원은 지난 1월 3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개발 경험 및 범부처 의료기기 과제'를 주제로 융합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기기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부처 의료기기 현황을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김영수 신경외과 교수의 '뇌정위 수술로봇의 개발', 임태호 응급의학과 교수의 '의료기기 인증은 어떻게?', 임한웅 안과 교수의 '눈운동 측정기기의 개발', 허영 재단법인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부이사장은 '의료기기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인공지능 연구네트워크 특강



본원 의학연구원은 지난 1월 총 2회의 '2020 인공지능 연구네트워크 특강'을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4층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했다.
1월 6일에는 최용석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인공지능 현황 및 최신 응용'을 주제로, 1월 20일에는 공용준 카카오 클라우드 상무가 'Redefine The Hospital with kakao A.I Saas'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동호 의학연구원장은 "본원은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한걸음 나가고자 연구역량 강화와 다각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특강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제18회 QI 경진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1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18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노성원 QI 실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구연과 포스터를 포함총 12개 팀이 참여했고, 이 중 8개 팀이 구연발표를 했다.
이번 QI 경진대회 대상은 '입원환자의 낙상예방을 위한 QI 활동'을 발표한 낙상제로팀(본관12층, 간호국 안전관리위원회), 금상은 '중환자실 안내 동영상 설명으로 중환자실 치료 경험에 대한 만족도 향상 활동'을 발표한 불만 ZERO팀(외과계중환자실), 은상은 '격리병동 환자 및 보호자의 격리 지침 수행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 교육 자료 개발 및 적용효과'를 발표한 감염 ZERO 한양 싹싹팀(음압병동), 동상은 '응급실 중증환자 재실시간 단축'을 발표한 골든타임 60분팀(권역응급의료센터), 장려상은 '소아 환자의 정확한 투약을 위한 환자안전 증진 활동'을 발표한 너도 보고 나도 보고팀(본관7층 소아청소년과) 외 3개팀이 수상했다.
한편, HY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공모한 캐치프레이즈 및 안전한양 사행시, 사진 콘테스트, UCC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가수 현숙, 한양대학교병원에 통산 1억원 기부



본원 홍보대사이자 명예교직원인 가수 현숙이 본원에 통산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2일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가수 현숙 한양대학교병원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현숙은 "어머니가 생전에 30년을 다니셨던 한양대학교병원은 항상 의료진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진료를 해주어서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라며 "지난 2007년 어머니 유지에 따라 한양대학교병원에 기부를 하게 됐고, 이후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병원으로 지금까지 기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오랫동안 본원을 사랑하고 병원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본원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기부자님의 뜻을 받들어 유용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20년 교직원 신년 하례식



본원은 지난 1월 2일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교직원들과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동수 원장은 "지난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많은 일이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차질 없이 진행한 한 해였다"며 "새해는 병동 리모델링 사업,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어깨통증의 이해, 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1월 3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형외과 조영훈 교수의 '어깨통증의 이해, 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18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구리 및 인근 지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협력체계 강화와 진료정보 교환 등을 위해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의가 접하는 간질성 폐질환(호흡기내과 여유미 교수), 급성 신부전의 진단과 초기치료(심장내과 김현진 교수), 개원의가 흔히 접하는 감염증례(감염내과 김지은 교수), 만성 B형 감염 치료의 최신지견(소화기내과 안지현 교수), 개원의가 흔히 접하는 신장 질환(신장내과 유미연 교수), 최신 당뇨병 치료 약제의 소개(내분비대사내과 유성훈 교수) 순서로 진행됐다.

2020년 전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



본원은 지난 2월 14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2020년도 전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동수 병원장, 이승환 부원장 등 1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하여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반기 정년 및 명예 퇴임자는 외과 남영수 교수, QI팀 이화준 선임부장, 간호국 장재선 선임부장 등 9명이다.

인물동정

의료원 보직 인사

• 의료원
〈경영지원실장〉 조영완 선임부장
〈대외홍보팀장〉 손화선 과장
• 서울병원
〈수련교육팀장〉 이창무 과장
〈인사총무파트장〉 조창영 과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파트장〉 음희재 과장
• 구리병원
〈운영지원국장〉 김대희 부장
〈간호국장〉 신순교 부장
〈인사총무팀장〉 김옥중 과장
〈홍보마케팅팀장〉 이종 부장
〈행정•교육팀장〉 홍은미 과장
〈병동1팀장〉 윤선애 과장
〈병동2팀장〉 이은희 부장
〈특수•외래팀장〉 윤희정 부장
〈51병동파트장〉 김도와 과장
〈71병동파트장〉 이현주 과장
〈내과계중환자실파트장〉 서승희 과장
〈신생아중환자실파트장〉 전경신 과장
〈인공신장실파트장〉 김미성 과장
〈진료협력팀파트장〉 서현주 과장
• 류마티스병원
〈류마행정지원팀장〉 정찬호 선임부장



이건석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건석 교수가 지난 12월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오송에서 주최한 '2019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전문기관 워크숍'에서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원준 교수,
'윤원식 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이원준 교수가 지난 12월 21일 서울대의대 안과학교실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연구 실적이 뛰어난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윤원식 학술상'을 수상했다.



임창훈 계장,
'적십자헌혈유공장'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창훈 계장이 지난 1월 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100회 이상 헌혈을 한 공로로 적십자헌혈유공장을 수상했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0년 1월 ~ 2020년 2월

YouTube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TV



배재만 교수
여성에게 흔히 발생, 자궁근종

태 경 교수
초기 발견 중요한 두경부암

최동호 교수
생존율 높아진 간이식수술

최규선 교수
뇌졸중 '이것' 기억하자

조정기 교수
전립선암의 유전

김희진 교수
뇌도 지친다, 뇌의 피로

고벽성 교수
조용한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황규태 교수 / 김연환 교수
재발률이 높은 질환 골수염

이창화 교수
만성신부전, 안전한 신장이식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s://pf.kakao.com/_WxgaRu

YouTube
'한양대학교의료원(HYUMC)'
https://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s://post.naver.com/hyumc-pr

NAVER 포스트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포스트



고주연 교수 / 고벽성 교수 / 윤재훈 교수 / 조석현 교수 / 김유정 교수

박진규 교수 / 임한웅 교수 / 최규선 교수 / 이창화 교수 / 황환식 교수

NAVER 포스트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건강카드

신진호 교수 / 김유정 교수 / 김진섭 교수

김용주 교수 / 박현경 교수 / 고주연 교수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9년 12월 ~ 2020년 1월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질병 극복의 꿈을 안고 새로운 연구로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한양대학교
의료원과 동행해주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5억원 이상

신한은행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정현숙
안주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민병원
박재일
유준호
윤여욱
이동규
이영준
이하은
최석주
한중수

1백만원 미만 ~5십만원 이상

김영애
김재민
정진환
정효경

5십만원 미만 ~1십만원 이상

강일규
강정한
강창남
강형구

고란주
고병우
고성호
고영선
고용
공동의
공상훈
곽인영
구선완
국은영
김경중
김금옥
김남기
김대호
김도윤
김동윤
김문성
김성재
김승현
김양욱
김영보
김영수
김영호
김예슬
김옥중
김용수
김용호
김운용
김운영
김이석
김정수
김지영

김창렬
김창선
김철웅
김충현
김태완
김태형
김한준
김현욱
김호중
김회숙
김희수
남승혁
남영자
남정현
노선균
노정환
노준모
류기영
류제일
문지용
문진화
문홍상
박기철
박동우
박예수
박용천
박원희
박일규
박찬혁
박창구
박태선
박혜경

박환철
박훤겸
박희정
박희철
반은주
백광흠
백운철
변순현
서승표
서우영
서정심
서정원
성명순
성민철
손주현
손한숙
송창면
신대현
신동한
신순교
신용운
신우종
신정철
신정훈
신태양
심경아
심재향
심지훈
안치원
여광호
염상철
염종훈

오미경
오영하
오재원
유교상
유미경
유정아
유창성
윤명희
윤여필
윤원구
은창수
이경섭
이경식
이경희
이광현
이규용
이두연
이봉근
이상현
이상훈
이성필
이승욱
이승환
이양섭
이영석
이유경
이은희
이장현
이제인
이종
이주학
이주한

이진규
이창범
이창우
이창훈
이형중
이혜순
이화준
임완에
임종선
장성호
장재선
장태원
전석분
전용철
전우재
전재범
전형준
정규성
정미선
정우성
정재호
정재홍
정진혁
조기섭
조상윤
조아라
조영훈
조주열
조희윤
주신환
지용배
채영림

최경진
최규선
최성환
최성훈
최완식
최정혜
최준호
최충혁
최호진
최홍용
하루미
한동수
한명훈
한상웅
한승훈
한주희
홍성숙
홍의호
황규태
황의순

1십만원 미만

강문주
강민아
강석범
강성훈
강신창
강윤성
강지원
공경숙
공지현
곽동원
권난희

권미화
권연희
권오균
권유진
권혁천
권현숙
김경수
김경숙
김경실
김경우
김광영
김기라
김나영
김대건
김도와
김동관
김란
김명환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성
김미화
김미희
김민정
김민정
김병숙
김보미
김상미
김상훈
김상희
김석현

김선영
김성철
김성훈
김소란
김수연
김순식
김아름
김애경
김애경
김연주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일
김영자
김영훈
김육원
김은미
김은실
김은희
김인호
김자윤
김재희
김정달
김정숙
김주희
김준식
김중식
김창금
김창복
김철한
김초롬

김춘애
김태근
김태호
김하연
김현주
김현진
김현창
김형근
김형석
김형주
김혜림
김황룡
김효준
김휘원
김희나
나소정
나인철
남기준
남순영
노광규
노욱석
노창완
류중백
명영숙
문상희
문영민
문재봉
문정희
문희애
박경림
박경미
박경숙

박경희
박근배
박미숙
박미순
박미옥
박상혁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성욱
박성찬
박소은
박수미
박수정
박순구
박연희
박용범
박유정
박은수
박은영
박은영
박은형
박응범
박주은
박지경
박지애
박진옥
박진희
박진희
박춘아
박현화

박혜정
방성주
배순석
배은희
백혜정
서명진
서병갑
서승희
서승희
서영남
서현주
설명길
성경희
성혜윤
손영성
손진석
송은경
송주영
송현수
신명희
신미숙
신수지
신정미
신철우
심요라
안명현
안미경
안석태
안선미
안유정
안은종
안은진

안정미
양길녀
양미영
양수용
양은주
양정자
양효선
엄혜정
오금복
오기향
오미혜
오영숙
오유선
오정님
오홍석
오화경
오희순
옥상열
우순희
우정미
원혜정
원홍석
유고은
유미화
유병호
유선길
유숙
유영미
유은희
유정안
유주량
유지학

유현영
육수영
윤선미
윤선애
윤아름
윤인숙
윤정희
윤지선
윤향순
윤희정
음희재
이강연
이경은
이경철
이관석
이규택
이나영
이두종
이명숙
이명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정
이민진
이상미
이새롬
이서윤
이선화
이성모
이성미
이수연

이숙
이숙희
이순자
이승호
이연주
이예린
이윤미
이은경
이은명
이은애
이은주
이정식
이정애
이정은
이정인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종열
이주영
이주현
이주현
이진주
이현주
이현중
이혜정
이호문
이호용
지미경
지은아
지혜정
진춘희
천경희

임정연
임주아
임지영
임화영
장경희
장선정
장윤주
전경신
정경은
정기영
정대천
정선주
정선희
정은영
정일웅
정임증
정정미
정현정
정혜영
정훈
조구성
조규선
조은영
조인옥
조현교
조현일
조환영
지미경
지은아
지혜정
진춘희
천경희

천영복
천은미
천은선
최문정
최미옥
최선희
최성은
최세연
최소담
최승희
최신자
최영선
최윤희
최재범
최종석
최종은
최현구
최현주
최혜용
표은주
하경애
하은영
한상운
한승희
한아영
한정연
한현남
한현정
함명자
허정헌
허태영
홍대영

홍민영
홍숙의
홍은미
황성희
황영순
황정선
황준호
황희수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마스크 착용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손바닥, 손톱 밑을
비누로 꼼꼼히
손씻기



감염 의심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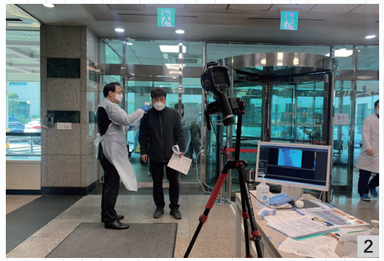


호흡기증상자는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받기

한양대학교의료원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관리와 안심 진료로 환자 안전에 만전



1


2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지침을 강화해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모든 교직원은 한마음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관리와 안심진료를 하고 있다. 각 출입구에서는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한 직원이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해 내원객의 체온 확인을 하고 있으며, 문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만 출입을 할 수 있다. 만약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 동남아, 일본 등을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비롯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원내외 철저한 방역 소독은 물론 교직원들의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입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들의 면회도 전면 제한하고 있다.

현재 모든 진료과와 응급실을 정상운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3



4



5



6

1 2 3 한양대학교병원 4 5 6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2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간질환
	이항락	금, 토(3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해 외 연 수		
	윤재훈	월, 화, 토(4주)	목	담낭, 담도, 췌장
	최성지	수	금	담낭, 담도, 췌장
	서원우	목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여지현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수현	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유찬규	토	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관홍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효	수, 금, 토(3주)	월, 수	
	박진규	월, 목, 토(1주)	화, 목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월, 목, 금	심장질환
	차승주			심장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홍수진	토(1주)		일반 신장내과질환
	김태훈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웅환			당뇨병, 골다공증, 갑상선
	김동선	월, 수, 목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3주)	수, 목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손영석	토(1주)	월, 화,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토(2주)	월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월, 화, 금, 토(1주)	화	기침천식, 알레르기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약물 부작용,면역치료
	박동원	해 외 연 수		
	이 현	목, 금, 토(4주)	수,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정승준	월, 수, 토(3주)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최지애	화	목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수	목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월, 화, 목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수, 금	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김지윤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뇌전증
	이영호	월(구리), 화(세포치료),토(1주)	화, 목	
	김용주	월, 화(내시경), 목,금(내시경),토(1주)	월,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수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김진섭	수, 금, 토(2,3주)	화, 목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화, 토(3주)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나재윤	월~수, 토(4주)	월~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안자혜	월~금	화, 목, 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안자혜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해 외 연 수		
	오기욱	월·금▲,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수, 토(2주)	월,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이상곤	화, 토(1주)	월▲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김석현	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화, 수, 토(4주)	수, 금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양극성장애, 조현병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금, 토(3주)	수,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토(1,4주)	화, 목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고원선	화	수, 목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화, 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1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이주희	월	목	상부위장관, 위암
	최지윤	화	금	혈관이식
	차치환	금	화	유방, 갑상선질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자발성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준호	금	월, 금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에크모, 심장이식, 흉부외상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금	월, 수,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교정,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금	수, 금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토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0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 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요통,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방지훈	목		일반 신경외과질환
	나민균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미용성형, 외상, 하지재건, 액취증, 안면부외상, 욕창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장란숙	월, 수, 토(1,3주)	목	소아성형,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안성침상, 액취증, 지방흡입, 미용성형
	유재만		화, 목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해 외 연 수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금지현	목, 토(2,4주)	화, 목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임한웅	금, 토(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안성형
	안성준	수, 금, 토(1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금(구리)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월(수술),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월, 수(어지럼증 클리닉),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김민송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토(2주)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토(1주)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소아비뇨기질환
	조정기	월, 금, 토(4주)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토(3주)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 2020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화, 금	월,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화,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황경균	월, 화, 수(수술), 목, 토(1주)	월, 화, 수(수술),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월(수술), 화, 수(수술), 목, 금, 토(2주)	화, 수(수술), 목, 금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토(4주)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토(4주)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이은혜	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권구현	월, 수, 금, 토(2주)	월, 수, 금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하태경		화	고도비만대사 수술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이수진	월, 수(1주), 목, 금(1주)	목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송재철	수(2,4주), 목, 금	월, 화,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성인형스틸병,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1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3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경피증,통풍,레이노증후군
	김태환	화-목, 토(1,3주)	월, 화	강직성척추염,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토(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경피증,통풍,강직성척추염
	최찬범	화, 수, 금,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척추염,혈관염,건선관절염,베체트병,통풍,루푸스
	조수경	월, 수, 목, 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염증성근병,통풍
	박대진	토(4주)	화,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송여진			
	신정민	화, 수, 토(1,5주)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연경	월, 금, 토(1주)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태한	목, 금, 토(1,4주)	월, 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2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임현영	화, 금	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박희경	월, 목	목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이봉근		화	전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최성훈	월		퇴행성척추증,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및 신경근증, 척추관 협착증, 노인성성추만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 2290-9550	이오영	목	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 질환
	은창수	수, 금, 토(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이지영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안지현	수, 목, 토(1주)	화, 금	간종 간질환(지방간, 바이러스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이재곤	화, 금, 토(3주)	목	소화기, 위장관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월, 화, 목, 금		임상심장학, 고혈압, 비혈관적 심기능 검사(심초음파)
	김현진	목, 금, 토(1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신정훈	월, 수, 토(2,4주)	화, 목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및 중증하지허혈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말기신부전클리닉
	이주학	화, 수(클리닉), 목, 토(2,4주)	월, 목	전해질이상질환,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고혈압, 부종, 부종클리닉
	유미연	월, 수, 토(1, 3주)	화,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통풍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금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금, 토(1,3주)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홍상모	월, 화, 토(1,3주)	수, 금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이혜순	월, 수, 목, 토(3주)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피부근염
	방소영	화, 금,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레이노증후군
	민경민	토(1,3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2주)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용	화, 금, 토(1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의학, 폐암,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중증구, 패혈증, 인공호흡기, 체외심폐보조요법(ECMO),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초음파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조민주		금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중환자실 내과계 외과계	박태선	월-금	월, 화, 목-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인석	월-금	화, 수, 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월	위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원영웅	월, 수, 금	화, 목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허준영	월, 화, 토(1,3주)	수, 목, 금	췌경막부-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직장암, 기타 암, 다발골수종(형질세포종양), 악성림프종 양성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금	화	신생아, 미숙아, 영아신경발달
	오재원	수, 금, 토(2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최영진	월, 목, 토(1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양승	수,토(3주)	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화, 토(4주)	목	소아응급, 소아일반질환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스병,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손저림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3,4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1,2주)	월, 수, 금	뇌졸중, 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화(보건소치매),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화병, 우울증
	김대호	화, 목, 토(1주)	월, 화, 금(클리닉)	PTSD, EMDR, 불안장애
통증심리클리닉▲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신경영상학, 조현병, 조울증
	김일번	월, 화, 토(2주)	수, 금	일반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종양,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류제일	화, 수, 토(3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월, 금, 토(4주)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방사선수술
	원유덕	화, 금	수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장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수	월, 목	흉강경 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에수	수, 금, 토(3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수, 목, 토(3주)	화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4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 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화, 목, 토(2주)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조영훈	화, 토(1주)	월, 목	견주관절, 스포츠 손상, 회전근개 질환, 골절 및 외상
	운준기	월, 화	금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2주)	화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혹), 부인암,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이장현	월, 화, 토(2,4주)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유방성형,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금, 토(1,3주)	월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목	화, 금	유방성형, 흉터성형, 당뇨족, 미용성형
외과	이홍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족부괴사, 당뇨발), 이식, 간담췌질환 탈장
	박훤겸	월, 목	화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김형석	월, 목, 토(1,2,3,4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수	월, 수	대장항문
	김현일	목		
	조유정	화, 수	금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3주)	화, 금	
	임한웅		화(1,3주)	
	신용운	월, 금, 토(4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이정욱	수, 목, 토(1,2주)	목	상형안과, 일반안과, 백내장
피부과	김정수	월, 목, 토	월,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 및 사마귀성 질환, 건선
	서현민	화, 수, 금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4주)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3주)	화, 목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화, 금, 토(2주)	월,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김형규	수, 목, 토(1주)	월, 금	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김경래		수	수면클리닉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2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종양, 남성과학, 복강경수술
	김규식	월, 토(3,4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발걸음클리닉▲ 관절재활 클리닉●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관절염, 목통증, 발통증), 스포츠 의학, 소아재활,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박재현	월	금	근골격계재활, 일반 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
치과	박원희	월-목, 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 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핵의학과	이수진		수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 질환,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1:00

생명의 탄생,
그 감동의 순간을
지키는 한 사람

분만센터
권지영 간호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순간, 이 감동의 순간을 밤낮없이 함께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권지영 씨는 진통으로 몸을 뒤척이는 산모를 보살피고, 출산 후 지친 산모의 곁을 지킵니다. 24시간 3교대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조산이 걱정됐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 퇴원한 산모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피로는 말끔하게 씻겨 나갑니다. 다시 웃음 지으며 분만센터 곳곳을 살뜰하게 돌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